

1. 종교다원주의 배경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64호
1월 16일
2021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호, 서울 다-07857 주번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남녀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위험적 예배 중단에 강력 대처

1차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뜻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험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정책에 철저히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희생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행정성도 없고, 교회도 파하지 않던 오해와 집행의 발원지에도 되는 등 강요였다.

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31일(목)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신선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교회연합회, 전국 226개 시·군·구기독교연합회,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연대 등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은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1월 4일(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강제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예배회복연대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장질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 같은 날 부산의 세계교회로 손꼽히는 담임 목사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세계교회와 교회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함을 밝히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한국의 예배 전통과 세계교회와 양장서서법적인 판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배에이는 믿음이라하는 것이기에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계교회와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 이에 대하여 정부와 자제가 반발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벌써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1월 4일(월) 세계교회와 이에 1차 강요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의 폐쇄 및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모든 자유의 근간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법집행으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한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헌법재판도 기대한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사)는 전국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강제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김지영)



송태식 목사
한국교회연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대대표회장 송태식 목사는 지난 1월 11일(월)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시와 관할구청이 대면예배를 드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부산 세계교회를 강제 폐쇄하는 것에 대해 총격과 강요를 금지 못하며,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마저 무력화시킨 '방역독재' 행위를 규탄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전문]

부산시와 관할구청이 대면예배를 드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부산 세계교회를 강제 폐쇄하는 것에 총격과 강요를 금지 못하며,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마저 무력화시킨 '방역독재' 행위를 규탄한다.

부산 세계교회에는 5,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교회이다. 이 교회는 전교인이 마스크를 쓰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20대 이상 환자 없애야 예배를 드려 왔다. 이 교회와 같은 6~7천여명 규모의 교회를 강제 폐쇄하는 것은 그동안 단 한 번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해 준다.

그런데도 부산시와 관할 구청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며 고지 6번과 고발고지 6-7차례나 경찰조사를 받거나 하는 등 온갖 행정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10일 주일에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그날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11일 새벽예배를

드렸다고하여 강제 폐쇄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자 과잉 법집행이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이 죄인이다. 성도는 이니와 코로나 종식을 위해 헌신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폐쇄시킨 정도로 위험한 반국가적 이적행위이다.

자위단체가 부산 세계교회를 강제 폐쇄하는 데 적용한 것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만, 한편 나오지 않은 교회를 강제 폐쇄시켜도 된다는 '무소불위' 법문이다.

부산 세계교회에는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신장에 따라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모여 예배드렸을 뿐이다. 예배를 드린 또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문제는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한 교회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행정당국이 마음대로 규제, 간섭할 사이인 아니다. 따라서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신성한 교회를 폐쇄할 수는 없다.

한국교회와 사회 일반 기준과 눈높이로 봐도 지나치게 불합리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수용하고 협조해 온 것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의식 때문이지 공권력이 무서워 순응 굴복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방역당국이 앞으로도 형평에 맞지 않는 기준과 조치로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압박 통제하려 한다면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부 교회에서 나온 학원 시설을 모든 한국교회에 책임을

전하는 식의 판 기르기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지금도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한국교회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신앙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법가의 문제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종교의 자유가 방역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부산시와 관할 구청이 이대로 부산 세계교회에 내린 강제 폐쇄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방역을 위한 긴밀한 민간 협력에 따른 자율적이고 신진 전환적인 방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일 행정당국이 기독교교회의 신앙 본질을 침해, 훼손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국교회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부산 세계교회 회원들은 헌법 제21조 제2항을 드리는 모든 교회에 기해서 는 부당한 행정명령에 교회와 교도, 기관, 단체가 연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인 신앙을 추구하고 지켜야 하는 행위에 맞서 한계위험한 행위를 비롯,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처해 나갈 것이다.

6만 교회, 1천만 성도들은 이번 패악주의적 대우를 철저히 방어 수칙 준수로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 주기를 당부드리며, 그 어떤 위기정변에서도 흔들려지지 않고 법집행하는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과 간구로 뜨겁게 응원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2021. 1. 11
한국교회연대
대표회장 송태식 목사



'좋은 결말이 보장된 사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시 127:1-2)



조승욱 목사

무슨 일이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결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결말이 좋으면 힘들었던 과정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가지 있고 보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면 언제나 좋은 결말을 보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하면 반드시 좋은 결말이 도출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하여 본문 말씀에 그 긍정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집을 짓는 지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집이 창고와 바탕으로 인하여 무너지면 세우는 자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됩니다. 반면에 그 집이 견고히 서 있으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말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며 방주의 재료와 규모와 건조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방주가 홍수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노아의 노력과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말이 좋았습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에 있는 성들은 크고 견고하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강하게 지키고 전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은 견고한 방어에서 성벽만 굳게 닫고 있으면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군 사람들은 성을 파수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파수와 방비가 허사가 되고 말

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 일성을 한 바퀴 돌고 잡힐 때는 일곱 바퀴 돌고 다 돌아와서 함성을 지르니 아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룩하고 취득한 것을 잃지 아니하고 온갖 대력을 세웁니다. 그러나 사람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죄로 인하여 만질 것이 부수져 버리고 성적이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사람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기 영광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영광이라는 최후의 결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물품을 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최상의 결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너희가 팔각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역을 먹음이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매여 달려들면 헛바퀴 돌 듯 하다 보면 어느 틈에 놓고 좌절하고 맙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인생이란 덧없고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그 생애에서 행한 일들이 무의미하게 끝나게 되지 않습니다. 자고 깨 먹고 일하는 것이 모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면 살아가면 그가 행한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끝에는 복스러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역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을 순행하는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평안을 잠을 자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과 담대를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교회의 예배가 스키장·눈썰매장보다 더 위험한가

예배 회복 행정소송 총 497개 교회 동참, 추가 모집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호·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예배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에 참여할 교회 및 단체를 모집했다. 그 결과 총 497개 교회와 단체의 의사를 전해 받고 있다.

1월 4일(월) 서울지역 32개 교회와 우선 '대면예배를 전면금지하고,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의 모임을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행정청원에 소송 접수를 했다. 이후 대전·부산 등 광역 단체별로 추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예자연 측은 "정부는 2단계 방역조치(특별방역대책)를 1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또다시 스키장 눈썰매장 등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1/3로 제한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교회는 대면예배 전면금지를 전적으로 묵과하고, 비대면 예배도 20명 미만만 허용하고 있다"며 "교회의 예배가 스키장·눈썰매장보다 더 위험한가"며 더 이상 예

배의 자유를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회의 예배 활동에 대해 최소한 다 시설과 유사하게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은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해 권력자도 방역 조치는 어려운 이유로도 응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자연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장질 때까지 행정소송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또 행정소송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모나티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유선 접수 전번(010-2733-7114, 서울 02-353-2829, 대전 042-551-0483), 이메일 접수(hema.y.jeong@gmail.com, twymakers@naver.com)

부산신학교 이사장 정기영 목사 격려금 전달



정기영 목사
부산신학교 이사장

본 교단 예향 부산신학교 이사장 정기영 목사(부산지방총회 총회장, 순복음세종교회 담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부산지역 교단 신하 13개 교회에 격려금을 지원했다.

정기영 목사는 은 낙락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이 전하는 것은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웠다.

정기영 목사는 은 낙락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이 전하는 것은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웠다.

교단공과 신청

출판한금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②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아동부 공과교재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① Fax: 02)2677-5181, 031)441-1793
 ② e-mail: aogk@aogk.org
 ③ 입금계좌: 농협 355-0053-3758-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은혜와진리교회

문의
 전 화: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ASSEMBLIES OF GOD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진동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상임회장



고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운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고재현(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시장), 아산교목장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상임회장 박노섭 목사
공동회장 최규명 목사
지도위원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부회장 박봉순 목사, 송화성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현원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광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청환 목사, 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상임총무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박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후원회 회장 한상문 장로
후원회 배성환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원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철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총무 최순식 목사 **서기** 정수희 목사 **회계** 박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 **폐농성물결**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암)
 (*고려대학교 송용석 교수님 압축으로 세계특허)
 2) **콜리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암, 항염, 항알콜,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 **타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 **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 **사포닌** : 면역력 증가
 6) **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밀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잔디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 **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해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 **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 **비타민C** : 알로에보다 4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 **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핵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괴,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생명나눔 알리는 나인퍼레이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로 진행



사회의장기중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태/이하 본부)는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부터 6일간 SNS를 통해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리는 나인퍼레이드를 개최했다. 올해로 66회를 맞은 나인퍼레이드는 장가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해인 12월 3주 주마다 병동에서 열렸던 나인퍼레이드는 유명 스포츠 트레너인 이노출을 비롯해 트레너들이 장기기증 관련 바나나인팅을 한 후, 산타로 변신해 감자나무를 행진하는 이색적인 퍼포먼스로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행사가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SNS에서 해당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다.

본부는 지난 12월 중순 나인산타에 지원한 총 100여 명의가 산타트린타모자, 티무스티커, 레깅스, 마스크 등을 전달했다. 키트를 전달받은 나인산타들은 12월 25일부터 30일 중 하루를 선택해 홍보물을 착용하고, 한 겨울 건강을 지키는 운동법 한 가지를 소개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며 장기기증 운동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이어갔다.

나인산타들은 각자 개성 넘치는 산타 복장을 한 후 장기기증 관련 티무스티커를 붙인 채 스텝, 플렉스 등 참여자 따라 하기 쉬운 운동법을 소개하며 생명나눔에 동참했다.

기아대책, 겨울방학 코로나19

취약 가정 아동 지원 캠페인 '겨울을 부탁해'

"방학기간 든든한 선생님과 함께 내일을 준비해요"

국내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지구 기아대책(위원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2월까지 코로나19 취약 가정 아동 지원 캠페인 '겨울을 부탁해'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 속에 겨울방학을 맞은 취약 계층 아동들의 가정 내 안전을 보충하고 방학 중 학습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여름방학에도 취약 가정 아동 지원 캠페인 '여름을 부탁해'를 진행한 바 있는 기아대책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아동의 학습 결손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추가해 ▲학습 ▲결식 ▲돌봄 ▲심리 건강 총 네 개 영역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아대책은 학습격차의 심각성에 대응하고자 '좋은 교사운동', '아이돌봄 사회책임' '돌봄'과 협력해 현직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습 멘토링인 '한 끼 돌봄' 프로젝트를 비롯해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학습 멘토링은 학습결손이 우려되는 서울 경기 지역 취약계층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동안 진행된다. 좋은교사운동 소속 현직교사 및 대학생 멘토가 팀을 이뤄 매주 1회의 대면 멘토링과 2-3회의 비대면 멘토링을 실시한다.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은 입시와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월 9주 차부터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진로진학 원데이 특강'에서는 고교 수학성적 27명에서 시작해 서울대학교 장학생으로 성장한 조승우 작가가 성적 향상을 위한 공부 비법을 공개해 애청이며, 송의영 김진훈 교사가 성적 향상을 위한 대입진학에 대한 코칭을 진행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을 통해 현직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1대1 비대면 진로 진학 상담도 4교시에 걸쳐 진행된다.

이단들의 찬송가...교주 신격화·교리주입 목적

이단 단체들은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교리를 주입하기 위해 그들만의 찬송가를 만들어 사용한다. 때로는 기성교회 찬송가의 가사를 임의로 개작해 사용하기도 한다.

하나님의교회는 '새 노래'라는 찬송가를 사용한다. '새 노래'의 제목을 보면, '인상홍님 우리의 하나님시오', '인상홍님 하나님께 찬양하세', '전능하신 인상홍님' 등 인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찬양을 그대로 드러낸다. 또 '어머나'를 붙이는 찬양도 있다. '어머나'는 하나님의교회에서 하는 어머니로 믿는 장강자를 뜻한다. '어머나' 대신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다. '어머나'의 사상이 이교인 살려내네, '어머니'의 생

명수 '등어머나'를 붙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통적 찬송가를 보면 신전지 교리가 담겨 있다. 이교지, 열두지파, 십사만사천, 1984년 중가장파성전 출현, 비유물 등 신전지 주요 내용이 찬송가 가사에 나온다. 44장 '예수께서 약속하신 의 가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침묵자가 탄생했네'라는 영계천국 이교지와 함께 하네 주 재림의 성이라 믿는 믿음이 있어 영계천국 신전지의 찬송수님 그가 바로 침묵자라'라고 되어 있다. 이교지나 침묵자는 이단임을 말하는 것이다. 통일교는 기성교회의 찬송가 뒤에 성가를 붙여서 함께 사용한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서 제작했다고 하지만 기성교회 찬송가가 벗어났

일부에는 배치되어 있고, 통일교에서 자체적으로만

들었다는 찬가 40여 곡 정도가 뒷부분에 붙어 있다. 문산성, 한학자 이름을 노골적으로 가사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찬송가나 성가를 부를 때 문산성을 생각하면서 찬송한다. '승리의 새 노래'라는 곡에서 승리자는 문산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참부모님은 문산성, 한학자를 말하는 것이다.

JMS는 정명석 목사 전주로 본적지인 정명석저작물을 부르기 시작했다. 정명석씨가 직접 노래한 가사와 곡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여러 악기 연주자를 불러서 함께 사용한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서 제작했다고 하지만 기성교회 찬송가가 벗어났

— 한대종교 2021년 1월호에 게재

동강그린모터스-천사운동연합, 협약

선교사 유가족 돕는 '그린엔젤페퍼' 출범

(주)동강그린모터스는 최근 (사)기독교천사운동연합(대표회장 김수배/이하 천사운동연합)과 협약을 맺고 천사운동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선교사 유가족 및 은퇴 목회자 돕기 프로젝트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사운동연합은 2011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은퇴 목회자와 선교사 유가족들의 생활 지원, 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선교단체이다.

천사운동연합의 사랑 실천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소천한 고 박영환 선교사의 어린 자녀 교육을 시작으로 이집트, 북한, 태국, 중국, 인도, 네팔, 미얀마의 유가족 등 은퇴 목회자들과 장기적으로 후원을 감당해왔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더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를 그리고 홀사모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천사운동연합은 크리스마스 패치 브랜드 '그린엔젤페퍼'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통해 후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린엔젤페퍼"는 친환경 패치기업인 동강그린모터스 대표회장 김수배가 천사운동연합의 사랑 실천 소리에 공감하여 패치 사업을 진행하기로 이르렀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천사운동연합의 김수배 대표회장은 "친환경 모범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동강그린모터스는 적합한 기업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생명을 하니 벌써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과 교회들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그린엔젤페퍼"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패치 요청 시 패치 수익금의 일부를 천사운동연합의 아름다운 사랑 나눔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한다.

가족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소복음교회, 가족세전도 아카데미 원장

전도자로 탄생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랑을 전함입니다!
가족세전도 박영수 목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기성교의 전도집회 4번 참석후 후 우리 예시영교회에서도 박영수 목사를 모시고 가족세전도(전도·스크린) 전도성경회를 하신 해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동안에 밤 기도회와 낮 기도를 계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

복이었습니다.

우리 예시영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를 만난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온 가족 구원과 부산 복음회를 위해 300명 성도를 세워주시길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전도 사명자들에게는 훈련을 시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함께하며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실습하여 헌성이 나가서 사람들과 전도대상자들을 영접기도로 구원시키는 전도성경회 만드는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영성이 되지 않고 계속 하느니라. 확장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민음으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달려갑니다. 지금까진 자식 있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 가슴 벅차며 기쁩니다.

우리 예시영교회에서 사대 개에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모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렵니다.

예시영교회 정성선 권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11-6392-1691, 010-3730-2573

평내소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컵속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두어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기금의 효능)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v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입입생 모집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yhsb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일 8
TEL:0212675-5181~3 FAX:0212677-5181

성명서

교회폐쇄법과 나쁜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산시 목회자와 성도대표들의 시국선언

적국의 대한민국은 법치가 사라지고 정치독재로 존재한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입법 시범 행정의 3권분립이 무너졌으며, 헌법재판소도 경찰도 검찰도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가 억압되는 국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온 국민이 일어나 저항할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돌리는 심정을 가지고 시국선언을 하고자 한다.

오늘은 기독교계의 주요 관심사인 교회 폐쇄법과 나쁜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산시 목회자들과 뜻을 함께한 성도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정치인들이 국민들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면, 이런 악한 법과 정책이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상해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1대 대통령이었다 이승만은 20대에 왕정 대신 민주주의를 꿈꾸다가 반역죄로 옥고를 치루던 1904년, 간수 폭대 국가보건을 담은 '독립선언'이란 책을 작성했다. 이승만은 '독립선언'에서 국가를 의미하는 한자 國家나 국자를 나라집이라고 해설했다. 국가는 왕과 같은 개인이나 소수 지배층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집인 혁명정권! 해석이 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가들과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족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마음가짐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2020년 1월 26일, 국민들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청와대 청원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고 하였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거부했고, 중국인 유학생을 입국을 취소 대우해 주었다. 심지어 국내의 마스크 등의 방역물자를 중국으로 반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기 보호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곧 이어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수백명의 국민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1월 26일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킨 대만이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비교가 된다.

대만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대만 보건당국은 눈물로 사죄했다. 그러나 한국의 방역당국은 수백 명의 국민들의 죽어가고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무너져 경제난을 당해 아무도 모르게 자살하는 와중에 1인당이 모범이라고 자랑하는 데 마음이 없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2월, 대만 총통은 감염자가 발생해라든가 국민들 간에 상호 비난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국민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 그런데 방역실책의 책임자인 정부는 사과는 커녕, 그들의 대만으로 감염된 피해자인 국민을 비난하고 낙인찍고 처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대만의 정치인들의 태도와 비교된다 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을 가질라고 한다. 집인은 제대로 돌보지 않아 초토화 되게 하면서 되려 차차들을 두들겨 때리는 패륜적인 가정이 많지 않을까? 가족 간에 상호배반하게 하여 하루에 하는 가정이 있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교회 폐쇄법이라고 비판을 듣는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 4항의 개정자들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

인들에게는 생명线上的 행위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하게 방역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예배인원을 제한하나요?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식당은 괜찮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백화점과 전철은 괜찮는데 왜 유독 교회는 목적이 마스크착용하고 예배드리는데 인원을 제한하나요? 이는 헌법이 정교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치발역의 종교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연방대법원은 일반사실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 교회는 50%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위반이라며 금지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과 다른 사실에 비교할 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감염자에서 예배시간 중에 감염된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나 대화 등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되었으며, 심각단계에서는 그러한 식사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내내 정부는 다른 사실에 비해서 교회를 코로나 근원지인 양, 오목적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당에서 방역을 빌미로 교회 문을 닫게 한다는 법안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는 부름되고 지켜볼 것입니다.

자유의 모든 실재를 폐쇄해야 하는 단계에서 운명을 할 경우, 그리고 감염되어 격리해야 할 경우, 그 기간동안 시설을 폐쇄 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있지만, 질병이나 보복 목적의 시설폐쇄 조치는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그 기본권의 본질을 손상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정부보다 먼저 적극적인 방역체제를 시행해왔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화가 아닌, '명령'을 남발하는 가장이 구성원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한가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에 맞지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걸쳐 논의가 되어 왔고, 장래부터가 연방리더가 비정규직이라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명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보호대상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는 것들을 포괄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다가 2003년에서야 민간 분야에 합법화 했고, 1993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동성애자의 공무원 채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에서의 차별을 없애고도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을 만든 주들이 있지만, 미국 의회와 차원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동성애를 한다고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고 없고, 동성애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정책을 한 적도 없습니다. 즉,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만일 구제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동성애에 대한 일상적 차별이 존재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사례가 많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성애를 우선화 하는 정치세력과 인권탄압세력은 곳곳에서 대테러로 기사의 인권 개선을 추종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반기독교적 좌파만 내 사회

문화와 정치문화를 모방하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많은 내용들은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국민들로부터 국가에 대한 주권을 박탈하고 외국인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내용들도 있는데, 중국인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하자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 시국에 참으로 위험한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하나님께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차별도 몰아 인권침해받았다고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대를 안할 수가 있을까?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범법행위로 보는 이 법은 동성애독재법이라고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반대의자를 막고,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강요하여,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무서운 동성애 독재법으로, 이 법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건전한 사회 윤리를 무너뜨리게 될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만일 그러한 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추진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중단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정당에게도 득이 없을 유럽의 사회주의 시민들의 정당의 몰락으로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를 천명하는 바입니다.

하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기본권을 무시하는 형법규정인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 4항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대만은 중국인입국금지로 확진자가 없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유입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 코로나 초기 중국발 입국자 금지라는 국민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범죄의 주역 국민으로 대한 형위에 문란! 정부는 사죄하라!

하나, 감염병예방법 개정과 다문화가족의 방역을 빌미로 교회문을 닫게 한다는 법안들은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탄압, 차별탄압이다. 이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 폐기하라!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범법으로 몰아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성애독재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하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미 많은 법이 제정되어 있다. 개별적으로 제정할 수 없어서 특히 돈 사다처럼 성적지향 성별장제성이란 독을 넣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환란으로 온 국민의 도덕과 윤리를 파탄에 빠뜨리려는 음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다. 헌법을 훼손하고 성경에 반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에 대하여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천명한다!

이상으로, 시국선언을 마칩니다.

2020년 12월 17일 08시

아산시인종분류학은동분류대표회장 정동용 목사 외 아산시 400교회 일동
아산시기독교연합회비판인권위원회(위원장 황기식 목사)와 실행위원 일동

초대시

전해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만나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택함받은 백성 광야길 갈 때
이게뭐지? 이게뭐지?
신기함으로 붙었던 그 만나
하늘양식 이슬처럼 내려
먹이고 입혀며 훈련하신
40년의 기나긴 그 광야길...

천지를 창조한
말씀의 만나가 지금도 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만나
기도하면 하늘에 보이는 비처럼 내리는 줄
이게뭐지? 이게뭐지?
신기하여 손 내밀어 잡아당기니
그 줄 끝에 매여있는 생명의 말씀

조심스레 기대하며 열여보니
잠언 3장 5-6절 말씀
그 말씀 꺾으 쥐고 힘있게 기도하며
온 맘 다해 흔들고 또 흔들더니
왜냐구요?...
그 줄 끝은 하늘보좌
만나 주신 응답의 주님이 계시니까요...

눈을 감으니 하늘에 줄이 가득하다
뭘지? 뭘지 하고 망쳐보니
마음에 새겨진 말씀 한구절
주신 말씀 근거 살아 기도할 때
확신하는 마음을 고백한다.



“총신대는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 철회하라”

동성애 · 동성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



‘동성애 · 동성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동반교연)이 지난 1월 8일(금) ‘총신대학 교사회와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총신대 측이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지만 이에 대해 이 교수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학교 측의 이의신청 역시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리면서 “부당한 징계는 성경적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사회 전반에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젠더이데올로기의 위협성에 대한 교육을 성회통으로 풀이한 것에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의 성별을 신에 따라진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지 않고,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인위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하여 다양한 성적지향과 결합을 인정하는 젠더이데올로기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을 파괴하며 사회질서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고 했다.

동반교연은 특히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차례 결정을 통해서 부당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 교원노조의 위법화가 오히려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어찌구무 없는 일’이라고 했다.

사설

의로운 가지

2020년은 병든 한 해였다. 다수의 알제리는 열병이 대 한민국을 괴롭힌 것이다. 숫자 싸움에서 이긴 다수는 손 안에 들어온 권력을 다진 듯이 위풍당당, 소수는 별다른 대처방안을 찾지 못한 채 무능력한 저항만을 했을 뿐이다. 이런 투구의 한 해였다.

프랑스의 알제시 드 토르빌은 민주주의 평등을 지 적했다. 그 평등은 다수로 이긴 사람들의 폭정이다. 결국 민주 독재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평등이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평등이라는 이름 뒤에서 행해지는 자유 억압,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억압하고 다름 아니다. 그동안 코로나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부 교회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인해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교회와 방역지침 명령을 위반하면 폐쇄가 가능하게 됐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擁護)해야 하는 교회법제정인 것이다.

다수를 차지한 사람들은 자기편이 아닌 자들을 내쳐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 결과 다수는 소수를 가혹하게 채내는 것이다. 어쩌다 잠깐 들어온 권력을 쥐고서 갖다 붙인 게 훗날이라는 것인데, 좀 더 얽힌 세력들에게 당국에 끌려 들어온 권력을 마구 흔든다 보니 어 느덧 임기가 끝나고 그 이후가 탈락잡이 난 것이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걱정하

지 않는 듯하다. 현급실제로 총선 패상당한 제미볼 보았 기때문인 듯싶다. 재선거원율을 다시 전 국민에게 준다는 말이 술술 나오고 있다. 있어서 주는 게 아니다. 빚터서 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심이 될까? 그래서 만든 것이 이른바 공수처법이다. 만든 이유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 중에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대한민국이 때문이다. 아담의 공수처장 비서관을 무력화시키고 친정체제로 중무장한 공수처법으로 권력형 비리 수사는 공수처로 가져와서 동개면 그것으로 끝이다. 기거스의 절대반자가 된 것이다.

위헌이 뚜렷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강행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하루는 5·18 왜곡해달라, 대북전도금지법과 수많은 반시장 법률을 쏟아내고 있고, 핵으로 위협하고 국민을 사살·훼손하는데 도대신 변명하고 개성공단 남북연락소 폭파사태에 포 로 쏘지 않아 다행이라는 등 북한에 굴종적 행태를 보이는 현 정부.

우리는 지금 수많은 선현들이 목숨을 내걸고서 지키고 일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차곡차곡 깨지고 민주와 세력임을 지켜주는 정권 수호자들이 위해 손쉽게 허물어질 위태로워지고 있는 이른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나 어찌와가 할바하고 보라 패가 이르러니 내가 다투어 계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렘 23)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징계?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도지사 이상원에서는 도지사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회 예배에 참석 한 소방공무원 2명을 직무해제 하는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그 소방공무원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전 지역에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후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질병감염관리법에 의한 고발이나 구상권(求償權) 청구까지 고려한다고 본다. 이는 도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른 과도한 조치로 본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직자들이 출근수업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모인도 아니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예배에 참석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른 여타

한 친목 모임이나 유혹 모임과는 다르다고 본다. 행정명령보다 우선하는 것은 헌법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모든 법률들이 우선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 종교의 자유라는 신앙적인 예배와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배법(違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코로나 장국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런 충청북도에서의 공무원에 대한 직무해제와 구상권 청구 등의 징계조치는 부당하며, 이를 시정하기 바란다. “비록을 잡으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으로 가셔버렸는가?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문: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배성환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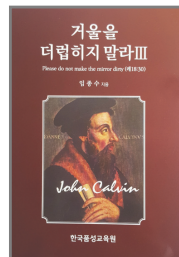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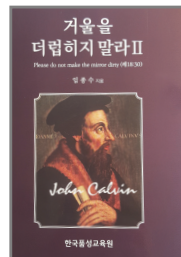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일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버린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따가는 영적훈련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 2, 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게좌번호 동형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장벽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불리쳐야 할 세력들 즉 겁과 근,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버린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 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 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익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3.는 이우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환한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호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열심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 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수: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환한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7-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